

북한 비핵화 염원, 한반도 평화정착 이루길

향군, 3차 남북정상 회담 성공 기원... 대통령 환송

향군은 9월18일 3차 남북정상 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도를 환송하며 창성동 별관과 성남 서울 공항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1천여 향군회원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회담성공'을 외치며 뜨거운 박수로 대통령을 성원했다.

김진호 회장은 "향군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일관된 입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기필코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결의와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보다 가시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 한반도 평화정착의 대전환을 이루는 데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1천만 향군회원이 한마음 되어 성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향군회원들도 이날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 모여 문 대통령을 환송했다.

서울시 향군회원들은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출발하는 헬기 소리가 들리자 송출하던 노래를 모두 끄고 헬기를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고 환호를 보냈다.

김윤한 서울시 향군 회장은 "문 대통령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가 정부의 안보 전략이라며 '강력한 국방력과 안보철학을 말한 문 대통령을 우리는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송행사는 향군이 그동안 일관되게 촉구해왔던 북

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떠나는 대통령에게 성공적인 회담을 성원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향군은 9월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235개소에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해 향군의 한결같은 북한 비핵화를 열망하는 목소리를 전파했다.

이에 앞서 향군은 지난 4월 27일 회원 6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성동 별관 앞에서 광화문 사거리에 이르는 1.2km 구간과 자유로 축선에서 남북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관문점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한 바 있다.

향군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국익을 위한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이를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건군 70주년 축하 케이크 절단

김진호 회장이 10월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0주년 국군의 날 경축연에 참석해 대형 '초코파이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리 호크스워스 6·25전쟁 영국군 참전용사,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김진호 회장.

"북핵 문제 해결 한·미·일 공조 중요"

김진호 회장, 일본 육군협회장 초청 간담회



김진호 회장은 9월17일 용산 육군회관에서 모리 쓰토무 일본 육군협회장(대우회 고문, 전 육막장)을 초청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한일 공조의 중요성 ▲한국과 일본 향군단체 교류와 협력 ▲향군 일본지회 관심과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호 회장은 최근 한반도 문제와 관련, "북핵과 미사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전쟁으로 갈 경우 가장

직접적이고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한국과 일본이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모리 회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 간 군사교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공식적인 정부채널 이외에 한일 예비역 단체 간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 젊은 청년층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10월 8일 재향군인의날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66주년을 축하합니다



LIG 빅스원

제 언

재정위기 극복위해
1천만 회원 힘 모아야

1952년 창설 이래 최고의 위기에 봉착한 향군을 보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임직원들과 1천만 회원이 믿음과 신뢰로 하나로 뭉쳐 노력하는 것 말고 다른 무엇이 있을까?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나는 그 날을 위해 다시 한번 회원들의 저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긴 시간 리더십의 부재로 끊임없이 발생했던 내부 갈등, 단결을 저해하던 개인주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김진호 회장 취임 후 총체적 개혁과 쇄신을 통해 이를 대부분 개선해 나갔다. 그리고 많은 것이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과제인 부채의 근본적 해결은 요원하다.

향군은 보유 자산 1조 3,000억에 부채 5,500억으로 회계법상 우량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향군타워 임대 및 중앙고속 등 산하기업체 이윤을 합해 수익은 300억에 불과한 반면 부채 이자 220억, 본부 운영비 80여 억, 시·도회 지원비 100억 등 연간 400억이 예산이 소요되어 매년 100억의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경영 혁신과 인건비 절감, 보유 자산 매각 등으로 부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진호 회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접촉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부채를 회장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는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 모두의 비장한 각오로 힘을 모아야 한다. 회원 개개인의 힘은 미약하지만 모두가 하나로 의지를

모은다면 극복 못할 일이 무엇이었겠는가?

김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대외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본부 부서장들도 현재와 같이 감봉 등을 통해 의지를 모아야 한다. 아울러 비장한 각오로 각 부서는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과감한 인력 감축을 단행해야 한다. 회원 여러분들도 향군 발전을 위한 본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시·도회도 건강한 향군을 육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본회 지원 활동비도 지자체 협조나 자체 사업 등으로 전환하고 정회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등 본부 운영에 도움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자세가 요구된다.

본부도 회원권의 향상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 불우 회원을 돕고 회원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향군회원 만이 누릴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이 담긴 향군 복지카드를 만들고 관광지 숙박시설, 맛집을 중심으로 우대가맹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대도시 기준으로 향군 주택 조합을 결성하여 무주택 회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쉽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휴대폰 앱 개발로 회원 가입이나 가맹점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복지 사업단 구성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부에서 각급회 그리고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지금의 재정위기는 머지 않은 장래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온 국민이 신뢰하는 사랑하는 새로운 향군으로 우뚝 설 것이다.

〈안보전략연구원〉

회원 여러분!

누구도 향군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향군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통을 기꺼이 함께하며 향군의 미래를 위해 발 벗고 뛰겠습니다.

건강한 향군, 믿음직한 향군 육성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동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든 향군 우리 힘으로 키워 나갑시다!

향군 전용묘역 조성, 회원 복지·자금심 고취

추모공원 ‘휴’ 봉안당 3천기, 수목장 890위 운영



향군은 9월12일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산하업체장 및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묘역 조성 기념 행사를 가졌다

LA지회 고국안장 희망자 장지 확보 요청 부응

향군전용묘역이 경기도 광주 분당추모공원에 조성된다. 향군은 9월12일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과 산하업체장 및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묘역 조성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로써 ▲ LA지회 등 전 해외지회 교포 희망자 ▲ 향군회원 및 상조회원 ▲ 국립묘지 및 호국원 안장 제외 대상(안보·친목단체 회원) 등이 전용묘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향군 전용묘역 조성사업은 국립묘지나 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향군 회원들의

묘역을 조성해 향군의 명예와 자금심을 드높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영혼들을 추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특히 본 사업은 재향군인회 상조회가 묘역관리를 주도해 유족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경기도 광주 분당추모공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진호 회장은 축사를 통해 “향군이 전용묘역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용묘역 조성뿐만 아니라 향군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자금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계속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군이 전용묘역을 조성하게 된 배경에는 향군 LA지회가 고국안장 희망자에 대한 전용 장지 확보 요청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

앞서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분당 영산추모원 ‘휴’와 지난 6월20일 ‘상호 공동 발전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맺고 ‘휴’가 운영하는 봉안당 3천기와 수목장 89주(890위)를 분양 받기로 했다.

향군은 향후 전용묘역 조성 사업에 회원들의 반응이 좋으면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향군 정회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제의 인물/ 만나보았습니다

고국에 영면하고픈 해외지회 회원 ‘소원 이뤄’

향군 전용묘역 조성 기념식 참석위해
고국 찾은 김재권 미 서부 향군 회장

“지금까지 향군이 해 왔던 많은 일들 중 해외지회의 입장에서 ‘향군전용묘역’을 조성이 가장 훌륭한 성과라고 봅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다 고국에 영면하고픈 많은 해외지회 회원들의 소원을 이루어 준 셈이니까요”

9월12일 분당 추모공원 ‘휴’에서 향군 전용묘역 조성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국을 찾은 김재권 미 서부 향군 회장(사진)을 만났다. 김 회장은 향군전용묘역 조성으로 회원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향군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며 이같이 소

회를 밝혔다.

향군의 명예를 고양하고 자금심을 고취하는 의미를 지닌 향군 전용묘역은 미 서부지회의 고국 안장 희망자에 대한 전용 장지 확보 요청에 따라 추진됐다. 미 서부지회는 지난 4월 재향군인회 상조회와 MOU를 체결하고 협조를 당부했으며 이에 재향군인회 상조회가 지난 6월20일 추모공원 ‘휴’와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현실화됐다.

김재권 회장은 짧았던 3년의 군 생활이 어떠한 역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의지력과 용기, 그



리고 신념을 주었다며 이것이 미국에서 향군에 몸담게 된 동기라고 말했다.

지난 4월3일 미국 서부지회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한 김재권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과 한인사회의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 회원 배가 운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실천을 위한 첫 과제가 향군전용묘역조성인 셈이다.

한국인으로, 향군회원으로, 교포사회의 안보 구심점으로 해외지회를 이끌며 부단한 노력과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김재권 회장과 미 서부 향군의 미래는 ‘땀’이다.



김진호 회장, 한미동맹만찬 참석

김진호 향군회장이 9월 14일 한미동맹만찬 행사에 참석하여 정관계 주요인사와 주한미군 지휘관들을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친선교류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좌측부터 권오성 주한미군전우회 한국 측 회장, 김진호 회장,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이사장, 월터 샤프 주한미군 전우회회장.

성우회, '남북, 미북 정상 합의와 주요 안보 이슈' 팸플릿 발간

과거 북한과 합의 내용·선언 이행 여부, 안보 문제점 등 지적

성우회가 우리 국민들이 평화무드에 힘써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리기 위해 남북 및 미북 정상간 합의내용 중에서 우리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분석한 팸플릿을 제작했다.

팸플릿에는 과거 북한과의 합의 내용과 선언들의 이행 여부, '한반도 비핵화' 의미,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비무장지대 평화지대 조성 등의 내용과 안보상 문제점 등이 게재되어 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인식 차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

화(FFVD)"인 반면, 북한은 "한반도 전체에 핵무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핵우산 등 한반도에 핵무기 전개까지 포함된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자칫 북한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협력, 종전선언 등은 미국, UN 등 국제사회와 협조하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팸플릿은 청와대 안보실과



국무총리실, 정부 주요 부서와 국회의원단 및 국방위원, 주요 방송 및 언론사, 성우회원들에게 배부됐다.

안보전망대

시진핑-아베,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월1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양국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일본과 중국의 공통 목표이며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 동

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을 구축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중국 사이의 우호협력관계를 깊게 하자는데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며 시 주석으로부터 북한 남치문 제 해결을 바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비핵화위해 한미공조 강화해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9월13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동아태 안보 차관보와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국방 차원에서 훌륭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주석 차관도 한미 공조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간의 비핵화 대화가 선순환을 이루며 추동할 수 있도록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올해 10월 말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50주년을 맞이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과 양국 국방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에이브럼스 지명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의 후임에 로버트 에이브럼스(57·대장) 육군 전력사령부 사령관이 지명된 것으로 9월1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한국전 당시 미 1군단과 9군단에서 참모장교로 근무한 부친 크레이튼 에이브럼스 전 육군참모총장의 3남이다.

그의 큰형과 작은형도 각각

육군 준장과 대장으로 예편했다. 미군의 주력 탱크인 M1 에이브럼스 전차도 그의 부친에게서 이름을 따온 것이기도 하다.

부임 시기는 의회 인준 및 인수인계 절차 등을 감안할 때 10월 말~11월 초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 2016년 4월 30일 취임한 뒤 2년 여간 재임해왔다.

안보정세 브리핑 / 평화협정의 체결과정과 전망 ① 12면

경 제66주년 재향군인의 날 축

지난 60여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온 최고 최대 안보단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창설 66주년을 맞아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1천만 회원 일동

중앙고속 재향군인회상조회 향우실업 향우종합관리 향우산업



중주 호관광선 통일전망대 향군타워사업본부 휴게소사업본부 종합사업본부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환경 개선 '벽화 그리기 봉사'

육군 2군수지원 사령부 예하 95정비대대 소속 장병과 군무원으로 이뤄진 '참수리 봉사단'이 9월5일 포천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문화소외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를 펼쳤다. 참수리 봉사단원들은 포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운암초등학교를 찾아가 학교 벽면에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벽화를 그렸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송현 일병은 "학생들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조성에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함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그늘진 지역에 작은 도움을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지키는 것이 군인의 길

해군 6항공전대 66전대 운항 관제대 김구석 중사가 지난 8월 18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해수욕장에서 지인들과 서핑을 즐기던 중 거센 물살에 휩쓸려 가는 10대 남학생을 목격, 주변 사람들에게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뒤 학생을

구조하기 위해 거침없이 바다에 뛰어 들었다.

김 중사는 학생을 서프보드에 태워 물 밖으로 구조하는 데 성공했고 구조 후에도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게 학생을 인계하고 현장을 떠났다.

장애인 한강 건너기 대회, 봉사

공군 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대가 지난 8월25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개최된 '제12회 장애인 수영 한강 건너기 대회'에서 수상 인명구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항공구조대는 신체장애 극복에 도전하는 장애인을 응원하고, 안전한 대회 운영을 돕기 위해 대회를 지원했으며 1000여

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선수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졌다. 육·해·공 전천후 작전에 투입되는 항공구조사는 뛰어난 수영 실력과 잠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수상에서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명구조원 자격과 응급구조사 자격도 구비하고 있다. 6전대 항공구조대는 수년 전부터 이 대회에 동참해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폭우 지나간 해안 환경정화

해병대 9여단과 신속기동부대 장병 80여 명이 9월3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추자도와 우도에서 도서수색작전 및 대민지원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도서수색작전은 도서내 적 침투 거부 및 도서수색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관·

군·경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통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제주도 남부지역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엉망이 된 추자도와 우도 해안 및 도로 일대의 환경 정화활동까지 병행해 섬 주민들의 호평을 얻었다.



건군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제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문재인 대통령,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김진호 재향군인 회장, 예비역 단체장, 참전용사, 시민 등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1일 오후 6시20분 용산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개최됐다.

미·푸에르토리코 참전용사 5박6일간 방한

푸에르토리코, 6만1천여명 참전...장진호 전투 성공 큰 역할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미국 자치령) 참전용사와 가족 등 120여 명이 9월10일부터 15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6·25전쟁 당시 미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푸에르토리코 참전용사들이 방한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푸에르토리코는 6만1천여 명의 장병들이 미군 소속으로 참전하여 이 중 756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실종되는 희생을 치렀다. 이들은 미 육군 제3보병사단에 배속되어 주요 전투에 참전, 불굴의 투혼을 발휘했으며 1950년 12월 장진호전투에서 중공군에 포위된 미 해병대를 엄호하고 방어진을 구축함으로써 장진호전투 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푸에르토리코는 제주도의 약 5



배 정도 되는 카리브해의 작은 섬으로, 약 37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 자치령이다.

한편 이번 방한단은 11일 판문점을 방문하여 남북 분단의 현장을 직접 둘러봤으며 12일에는 서울국립현충원을 방문,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어 13일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전우들을 위

해 헌화하고 14일에는 감사만찬 행사에 참석한 뒤 출국했다.

방한단에는 1950년 9월부터 이듬해인 1951년 6월까지 미 해병 1사단 병장으로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과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 작전에 모두 참여한 미국 참전용사 랄프 가스텔럼(Ralph Gastelum, 87세)씨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국제 보훈워크숍, 각국 보훈정책 비교 분석

보훈선진국과 유엔참전국 보훈관계자들이 매년 한자리에 모여 각국의 보훈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정책비전을 공유하는 국제학술교류의 장인 2018년도 국제 보훈워크숍이 9월18일, 19일 서울힐튼호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국제보훈워크숍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 보훈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첫날 힐튼호텔에서는 '국가적

기념행사 추진 체계 및 주요사업 현황'이라는 주제로 유엔참전국과 국내 관계자들이 발표자로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4개국 초청자와 보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국간 네트워크 및 정례적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보훈정책 발전 및 국제 협력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2020년 6·25전쟁 70주년 등 각종 국가적 기념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선진사례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보훈병원 시범진료, 130병상, 15개과 운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위치한 인천보훈병원이 지난 8월 31일부터 시범진료를 실시한다.

인천·경기지역 25만 보훈대상자들의 의료지원을 위해 건립된 인천보훈병원은 지하 1층, 지상 7층(대지 2만 8,680㎡, 연면적 1만 979㎡) 규모로 130병상을 확보하고 4개 분야 내과(소화기, 순환기, 내분비, 호흡기)를 포함하여 총 15개 진료과를 운영한다.

현재는 고령 국가유공자의 다빈도 질환을 감안해 소화기내과, 비뇨의학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재활의학과, 치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총 8개의 진료과가 우선적으로 시범진료에 들어갔으며 단계적으로 총 15개의 진료과가 진료를 개시할 예정이다.

인천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 향군,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지역 명소·특산물 홍보, 경제·안보 순회 교육도 병행

전라북도 향군(회장 주대진)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11일부터 열흘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 14개 시·군 지역에서 실

시된 캠페인을 통해 전라북도 향군은 지역 명소 소개 및 안내, 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회원을 대상으로 경제·안보 순회 교육도 병행해 실시했다.

특히 전북 향군은 9월11일 향

군 임직원과 여성회 회원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주 중앙시장과 모래내 시장, 한옥 마을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19일에는 남문시장과 한옥마을 일대에서, 21일에는 IC 일대에서 캠페인을 펼쳤다.



◆위기 극복의 청병 / 대구시 향군

수익구조 개선 재정자립 기틀 마련

업무시설로 임대전환, 회 수익 극대화 ... 옥상 광고탑 유치도 추진



대구시 향군은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티브로드 대구방송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요사이 대구시 향군회관은 공사가 한창이다. 2002년 준공 당시 사우나로 시설된 2, 3층을 업무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구시 향군(회장 성백규)은 수익이 저조한 목욕탕을 업무시설로 변경해 임대수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대구시 향군회관은 대구지하철 2호선 용산역의 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 법조타운, 쇼핑몰 등이 위치해 떠오르는 상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주변 환경이 준공당시와 많이 달라졌다.

사우나를 업무시설로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 향군은 수익이 저조한 사우나를 계속 유지해 나갈 이유가 없어졌고 오히려 업무시설 변경으로 임대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것이 본회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각급회 재정 자립 방침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라 판단했다.

대구시 향군은 사우나 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면서 최소한

월 800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사우나 2~3층중 2층은 병원으로 임대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토록해 대구시 향군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 수익으로 대구시 향군은 미자립 구·군회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분기별로 6개 구·군회에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광고탑 유치 수익 극대화

뿐만 아니다. 향군 회관 옥상에 광고탑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회관의 특성 상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를 통해 대구시 향군은 회 수익을 극대화해 재정 자립을 달성해 나간다는 목표다.



대구시향군회관

“대구시에 회 운영비 지원을 요청했었지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회관 건립하면서 많이 지원했으니 어렵다고 답했어요. 많은 지원받은 건 사실이라 할 말이 없었죠” 지난 2002년 향군회관 준공 당시 대구시 향군은 건립비용의 45% 가량인 4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당시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다.

그러나 대구시 향군은 멈추지 않고 꾸준히 시청을 찾아 담당자에게 회 운영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대구시 향군은 시로부터 연간 1천400만원 가량을 사업비로 지원 받게 되어 후계세대 안보교육비로 사용하고 있다. 대구시 향군 임직원들의 노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대로 가다간 공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새로운 향군건설의 초석을 닦기 위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해봐야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렇게 하다보면 향군은 재도약할 것이라 자신합니다.” 대구시 향군 직원들의 다짐이다.

티브로드 대구방송과 MOU, 홍보역량 강화

최근 대구시 향군은 김상섭 티브로드 대구방송 대표와 성백규 대구시 향군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티브로드 대구방송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실추된 향군의 위상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발판을 위한 홍보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신우일신하는 대구시 향군, 침체된 조직의 활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대구시 향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경남·울산 향군, 업무 협약

민족통일경남협의회와 통일과 국가안보 협조

경남·울산 향군(회장 손도수)은 8월30일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회장 정영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가 발전과 민족통일의 밑거름을 위한 활동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손도수 경남·울산 향군회장은 “우리향군과 전국 최고의 통일단

체인 민족통일협의회와의 업무협약식 체결은 통일과 안보를 위해 큰 의미를 가진다”며 정영노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 회장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정영노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 회장이 “통일과 국가안보를 위해 상호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북 향군, 태국·필리핀 참전용사 위문

경상북도 향군(회장 양정석)이 8월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해외참전용사 위문사업 일환으로 태국을 방문, 참전용사 위문과 참전비 참배행사를 가졌다.

경북 향군은 방문기간 태국근교에 있는 참전용사 마을과 회관을 찾아 그분들과 후손들을 직접 찾아 감사의 인사와 소정의 위문금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특히 참전당시 태국군 파견 총사령관을 만나 영웅담을 듣기도 했다. 또 6·25 참전부대가 있는 촌부리 21

연대와 참전기념관을 방문하여 참배행사도 가졌다.

태국은 6·25 당시 6,530명의 정예 병력을 한국에 파견, 대한민국의 자유수호에 크게 기여했다.

이어 도회 이사회 및 여성회 이사회는 9월7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간 필리핀 참전용사를 찾아 위문하고 참전비 헌화 및 현지 문화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필리핀은 6·25 당시 7,460여명의 병력을 파견하여 149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실종됐다.



향군 상조회, HP바이오 연구소와 업무 협약



재향군인회상조회는 9월17일 유전자분석 국내1위 업체인 에이치피바이오연구소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수익창출과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일제 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을 비롯한 전 세계 강제 동원된 한인 및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 발굴·봉환을 위한 DNA감식 사업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탈모·비만·당뇨 등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분석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사업, 치매조기진단 사업, 산전기형아 검사 아리아니프티 검사 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유전자 검사를 향군 상조회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중앙고속, 추석연휴 특별수송 성공적으로 마쳐

안전하고 친절한 고객 맞기로 회사 이미지 제고

중앙고속(사장 노연웅)은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추석 연휴 특별수송에서 사전 치밀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연웅 사장은 예년에 비해 짧은 연휴 기간으로 많은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을 예상하고, 회사가 보유한 375대의 고속버스 차량(프리미엄 24대, 우등형 246대, 일반형 105대)에 대해 철저한 정비와 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260대의 외부 차량을 임시차로 확보하고 기간 중 본사직원을 고속사업본부에 파견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토록 조치했다.

그리고 승객들의 예매율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임시차를 배정하고, 회사 소속 승무사원은

물론 외부차량의 승무사원까지 음주측정을 실시케 했으며, 운행 후 규정된 휴게시간을 철저히 보장토록 조치함으로써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특별 수송을 마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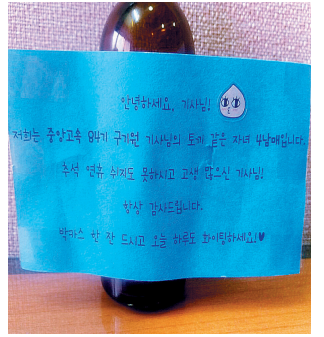
이처럼 중앙고속은 사장으로부터 승무사원에 이르기까지 모

든 직원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특별수송에 임함으로써 편도 7,300여회의 운행과 17만여 명의 승객을 수송하면서도 타사와는 달리 단 한건의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목표액까지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심야에도 귀객객 수송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중앙고속버스.

구기원 사원 자녀 응원메시지... 훈훈



동서울과 광주 간을 운행하는 승무사원(구기원, 84기)의 자녀(1남3녀)들이 동서울사업소를 방문, 손 글씨로 쓴 "추석 연휴 쉬지도 못하고 고생 많으신 기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카스 한잔 드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라는 메모지를 부착한 박카스 4박스를 승무사원들에게 전해 주위를 따뜻하게 했다.

향군역사 바로알기 ①

1952년 창설, 안보단체로 국가발전에 기여

예비군 창설 주축 안보정책 지원

재향군인회 창설 66주년을 맞아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찬 향군의 미래를 위해 향군 역사 바로알기 코너를 신설, 향군이 걸어왔던 길을 재조명하여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올해로 창설 66주년을 맞았다. 향군은 창설이후 66년 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나 안보위기가 있을 때 마다 국가 안보 제2의 보루로서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의 향군이 있기까지 고난과 역경, 기쁨과 환희가 교차 했으며 우여곡절도 있었다.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2월 1일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허정 당시 국무총리와 각계각층의 수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식을 갖고 국방부 병무국(지금의 동원국)예하단체로 탄생했다. 창설당시의 임무는 '국방부의 병무행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에 있는 징병대상자와 예비역대상자를 관리하여 전시 동원 체제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초대 회장은 현역 육군 준장인 백흥석 병무국장 겸직을 했다.

1952년 2월1일 임시수도 부산서 출범

창설 당시 회원은 제대군인 30만명으로 출발했다. 1950년 1월 20일 육군은 전역을 희망하는 하사관(부사관) 2,000명을 선발해 1차로 만기 전역시켜 예비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들이 최초의 재향군인들이었다. 그 후 매월 한차례씩 전역 조치한 제대군인들을 모아 창설 직전 약 30만명의 제대군인이 모이게 되었다. 그 후 1953년 7월 25일 휴전협정체결 이후 국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청년단' 조직을 해체 흡수하여 140만명의 '민병대' 조직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1955년 4월 28일 정치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승만 대통령이 민병대 해체 지시를 함에 따라 해체되었다가 1956년 7월 12일 국방부의 중재로 제대군인단체 단일화를 추진하여 사단법인 '대한상무회'로 새 출발하였으나 다시 1960년 5월 4일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 향군 조직은 13개 시·도회와 221개 시·군·구회, 3,266개 읍·면·동회와 22개 해외지회로 구성된 1,000만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로 발전했다.

또 향군은 여성들의 친목도모와 향군의 활동지원 및 군의 사기양양 지원을 위해, 1991년 7월 4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를 조직했다. 향군 여성회는 현재 6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한 가운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향군인회는 1961년 5월 8일 세계재향군인연맹(WVF)에 가입하여 1962년 6월 한 달을 세계재향군인의 달로 설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대외위상을 높였으며 다음해인 1963년 6월 8일,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세계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을 비롯해 3부 요인, 3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5천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해 향군의 위상과 단결력을 과시했다. 향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1965년 6월8일 매년 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제정했으나, 가정의 달, 어버이날, 농번기와 중복되어 2002년 6월 19일 재향군인의 날을 10월 8일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만 향토예비군 창설 모체, 재향군인회

향군은 안보활동에도 큰 족적을 남겼다. 1968년 1월 21일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사건이 발생했다. 직후인 2월 28일에 개최된 제9차 정기 전국총회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250만 재향군인을 무장시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그 후 향군을 주축으로 한 200만 향토예비군을 편성하여 1968년 4월 1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창설식을 거행했다. 이렇게 창설된 향토예비군은 그해 11월 울진삼척에 침투한 북한무장공비토발작전 등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대침투 작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수립한바 있다.

또 1969년 닉슨 미국대통령은 '닉슨독트린'을 발표하여 주한미군 2만명을 철수시키는 등 한반도 안보정세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에 재향군인회는 1971년 10월 31일 개최된 제4차 이사회에서 '자주국방사상 촉진운동'을 채택하고 전국적인 '총력안보운동'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77년 1월에 취임한 미국 카터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중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참여정권은 '민족 자존심의 문제'라며 2012년4월17

일부로 전작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보수단체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향군은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라며 전작권 전환 연기에 총력을 경주했다. 전작권 전환 연기 1천만명 서명 운동을 재추진하고 한미양국대통령에게 호소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를 이끌어내는 주역이 되었다.

그 외에도 국가안보의 제2보루인 향군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범국민적인 안보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해 '범국민 안보공감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올바른 안보관을 견지할 수 있도록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분단의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확고한 안보의식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현재까지 6월 25일부터 11일간에 걸쳐 '대학생 휴전선 및 6·25전적지 답사 대장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향군 정체성 선포, 국가안보단체 천명

창설 66주년을 맞은 향군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무드로 변하고 역사적인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군의 역할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향군은 지난해 10월 8일 창설 65주년을 맞아 '향군 정체성선포식'을 갖고 향군의 정체성은 안보단체임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으며 안보활동기조와 지침을 만들어 기준에 맞는 안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향군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안보상황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처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자유 민주체제를 수호하며, 튼튼한 국방과 한미동맹을 지원하는 등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보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향군은 지금 36대 김진호 회장을 중심으로 1천만 회원이 하나되어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향군의 발전은 계속 될 것이다. <홍보실>

재해구호협회, 향군에 감사서신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한 데 대해 향군과 김진호 회장에게 송필호 회장 명의의 감사서신을 보내왔다.

재해구호협회는 서신에서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협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재난발생피해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즉시 현장캠프를 설치해 구호활동을 하는 등 협회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었다”며 “협회의 따뜻한 버팀목이 되어 준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재난피해에 신속하고 효

현장 구호활동, ‘감사’ 재난피해 줄여

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와 함께 재난을 당한 어려운 이웃과 국민의 마음을 이어주는 희망의 다리로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북향군, ‘미아리고개, 호국·안보기원’ 행사

순국선열 호국정신 기려... 안보 상징물 건립 추진



서울 성북구 향군이 개최한 ‘미아리고개’ 호국·안보 행사.

서울 성북구 향군(회장 박상찬)은 9월15일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성북구 96명의 독립지사와 6·25전쟁 당시 3,000명의 호국영웅들의 정신을 되새기며 납북자 유족들의 아픔을 되돌아보고 튼튼한 안보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게 ‘호국·안보, 평화와 희망, 그리고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아리고개, 호국·안보 및 평화기원’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 맞는 이번 행사는 기념행사와 사진전시회 등 부속행사로 구성되었으며 “독립지사 및 호국영웅들의 기상을 표현한” 천동소리” 난타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6·25

당시 처절했던 모습을 담은 150여점의 사진 전시회와 국군을 지원했던 애국부인회를 재현한 전시음식(주먹밥) 시식행사, 우리 군의 현대화 장비 전시회, 미아리고개 안보 상징물 건립기금 마련 바자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개최돼 시민들의 참여와 눈길을 끌었다.

박상찬 서울 성북구 향군회장은 “6·25 개전 초기, 위급한 상황에서 서울의 최후 방어선이었으며 9·28 서울 수복 전투 시 최종 목표였던 미아리고개의 상징성은 국내 어떤 지역의 전적지 못지않다”며 “선열들의 호국정신과 넋을 기릴 수 있는 상징물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군 안보활동 지원, 여성회 큰 역할

향군여성회 창립 20주년 간담회

향군 여성회(회장 추순삼)가 9월 7일 제68주년 여군의 날과 향군 여성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역 여군 간담회를 갖고 새롭게 달라진 향군의 모습을 홍보하고 향군의 안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추순삼 향군 여성회장은 “향군 여성회가 향군의 안보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예비역 여군들의 참여는 큰 도움이 된다”며 “예비역 여군들이 군에서 익힌 리더십을 바탕으로 향군 여성회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초대 향군 여성회장인 정영숙 예비역 육군 대령은 “우리나라



향군여성회 창립 20주년 간담회.

에 많은 예비역 단체들이 있지만 향군 여성회만큼 체계적으로 사회공익에 기여하는 순수 봉사활동 단체는 없다”며 “앞으로도 향군 여성회가 향군의 위상을 높이는 역

할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교·부사관 출신 및 여성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비역 여군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여성회원 확보 방안과 여성회 활동 영역 확대, 예비역 여군 취업지원 방안, 산재한 여군 예비역 모임의 통합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향군 여성회는 지난 '98년 애국·명예·친목을 목표로 창설된 이후 13개 시·도와 222개 시·군·구에서 약 30만 명의 회원이 향군 안보활동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미 북서부 향군, 한미우호 행사

미 북서부 향군(회장 이근안)은 9월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센트럴 파크에서 한국에서 북무한 미군 전역자를 초청해 한미 양국의 우호를 다지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근안 지회장은 “그동안 한

국에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재향군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미 국방 외국어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현역 군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했다.

의정부시 향군,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

경기도 의정부시 향군(회장 최종판)은 9월1일, 2일 의정부 시청과 청소년 수련원에서 주체하는 청소년 진로 퍼스티벌 행사에 참여했다.

의정부시 향군은 1개 부스를 이용하여 군용장비(MG50, M-60.개인화기), 개인군장 물품 42종, 2인용 텐트 설치, 군용조끼·군복, 군장 착용, 군용건빵 시식, 육·해·

공군 복장 착용, 6·25 사진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시켜 미래를 구상하는 데 기여했다.

또 선진화된 군부대 발전상과 청소년들에게 군에 대한 이미지와 군인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1천만 향군회원을 위한 향군전용모역 조성!

- 향군전용모역 제공을 통한 향군회원의 자긍심, 명예고양
- 고국안장 희망 해외교민에 대한 모역 제공
-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 모역 제공 (친목·안보단체 등)
- 향군상조회 주도 모역관리로 유족에게 안정감 및 신뢰감 제공
- 시설명 : 재단법인 분당영산추모원 “휴” 시설 내 향군전용모역
- 주소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3
- 상 담 : 모역상담 031-762-3000 (전문 상담업체를 통한 모역 할인 제공)



향군상조회-hp바이오연구소 '유전자 검사' 업무 협약 체결

- 국내 1위 업체 hp바이오연구소와 ‘한인 유해 발굴·봉환 등’ 유전자검사 전략적 제휴 체결
- 전세계 강제 동원된 한인 및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발굴·봉환을 위한 DNA감식
- 피부노화·탈모·비만·당뇨 등과 관련된 유전자 변이를 분석할 수 있는 DTC 유전자검사
- 치매조기진단 사업, 산전기형아검사 아리아 니프티 검사 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유전자 검사 향군상조회원에게 제공

각급회 소식

(8월21일 ~ 9월20일)

부산시 향군



부산시회 : 9월4일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 조례보완 등 향군 지원 업무 및 안보정세 논의. 9월13일 육군 제53사단에서 선화여중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1일 병영체험 행사. 9월17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환자들의 빠른 쾌유 기원.



기장군회 : 9월10일 지역 주민들의 휴식처인 테마임도에서 내고장 가꾸기 자연정화 활동 실시.



동래·연제구회 : 여성회는 9월11일부터 14일까지 지역 내 경로당 3곳을 찾아 식사제공, 편의시설 세척 등 봉사활동을 전개.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9월12일 향군회관에서 티브로드 대구방송과 상호 공동발전과 교류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수성구회 : 여성회는 8월29일 경술국치 81주년 기념행사에서 보리 주먹밥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 실시. 8월 23일 수성구청 주관 수성구 안보단체장 초청 간담회에 참석, 상호 친목교류 및 협력 도모.

달서구회 : 9월11일 김무환 시회 안보부장을 초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여성회는 9월12일, 13일까지 지역 단체 별 2018년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참석.

서구회 : 9월18일 제일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지역내 저소득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가위 축제' 참여.



중구회 : 9월7일 향군회관에서 김무환 시회 안보부장을 초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9월11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 최근 안보정세를 보고받고 및 내년 예비군 육성 계획 등 안건 심의. 9월15일 월미공원에서 열린 제68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참석.

부평구회 : 8월29일 부개동 근린공원 일대에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기초 질서 의식 높이는 향군 그린운동을 실시. 9월4일 시회 안보부장을 초빙하여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주제로 안보강연.

동구회 : 8월29일 허인한 동구청장과 송광식 동구의회 의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위촉과 전달. 9월7일 동구청, 송림오거리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및 기초질서 운동.

강화군회 : 8월28일 삼량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 경기도 파주 제3땅굴 일대를 둘러보는 학생안보현장견학 행사실시.



연수구회 : 9월5일 상근예비역과 예비군 가운데 형편이 어렵거나 개인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육군 17사단 미추홀부대 507여단 대원 합동결혼식 비용 기부.

계양구회 : 9월8일 관내 작전동 야외공원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정화활동.



서구회 : 9월5일, 6일 보훈 대상자 15명을 초청하여 백령도를 방문, 해병 6여단 방문 및 천안함 위령탑 등 안보전적지 견학. 8월 23일 관내 올바른 치과와 업무협약을 맺고 임플란트 20~30% 할인 등 각종 치료와 보정에 대한 할인 혜택 받음.

경기도 향군

포천시회 : 9월 13일 포천시 신북면 유식물원에서 '사랑 愛 집 고치기' 입주식 행사 실시.



수원시회 : 9월12일 (회장 김영경)에서는 오산 유엔군 초전기념관에서 아산 현충사·이충무공 묘소, 아산만 방조제 일대 안보현장 견학.

강원도 향군



강원도회 : 9월11일부터 12까지 양구군 두드림센터에서 시·군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가져.

원주시 개운동회 : 9월12일 지역 기관단체협의회와 원주탁주합동제조장 등과 함께 불우 이웃 돕기 상품권 기탁.

속초시회 : 9월18일 6·25전쟁 당시 설악산 전투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애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설악산 정고평 이름 모를 자유용사의 비에서 제22회 추모제 거행.



춘천시회 : 9월18일 한가위를 맞이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 50여명의 집을 방문, 쌀과 생필품 등 추석선물세트를 전달.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9월 12일 향군회관에서 본부 안보전략연구원 이상배 선임연구원을 초청, 도회 임직원 및 시·군회 사무국장,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300만 정회원 확보방안에 대한 교육 실시.

옥천군회 : 9월7일 제2201부대장 및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력사항 및 안보현안 논의.

영동군회 : 여성회는 9월18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독거노인과 불우이웃들에게 사랑의 떡나누기 행사.

괴산군회 : 9월14일 양태복 도회 안보부장을 초청, 안보강연 실시.



충주시회 : 여성회는 9월13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수안보면 수회리 무궁화동산을 찾아 환경정화활동 펼쳐.



청주시회 : 여성회는 9월11일 개신동 배수지 주변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향군업무 교육.

대전·충남 향군



대전·충남도회 : 9월3일 향군회관에서 21개 시·군·구회 사무국장과 여사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회원 300만 확보를 위한 안보전략연구원 이상배 선임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와 교육 실시. 8월31일 향군회관에서 21개 시·군·구회장 간담회를 개최, 향군위상 제고를 위해 조직 강화활동에 전념하기로 해.

대전 서구회 : 9월4일 향군회관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통일"을 주제로 한인구 안보교수를 초청, 안보강연 실시.



대전 대덕구회 : 9월10일 향군회관에서 박종철 안보교수를 초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안보교육 실시.

보령시회 : 8월22일 향군회관에서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안보강연 실시.

태안군회 : 8월22일 태안군 예비군기동대에서 무더위에도 향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 위문품 전달.

전라북도 향군

전북도회 : 여성회는 8월25일 특수임무유공자회 잠수부들과 전북 군산 비응항 일대에서 태풍피해 복구 및 환경정화 활동 펼쳐.

고창군회 : 8월24일 고창 신림면 호수 가운데서 회원 단합 행사를 갖고 친목 도모.

〈8면에 이어〉

남원시회 : 여성회는 8월29일 사랑의 광장에서 열린 다문화 화합한마당 전국행사에 참석, 봉사활동. 9월14일 충남 아산 현충사 안보 현장견학 행사.

무주군회 : 여성회는 9월3일부터 9일까지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인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 관광객안내와 무주향교의 전통전례의식을 재연하는 봉사활동 전개.



전주시회 : 8월29일 낙동강지구 전투를 기념하는 '철곡호국평화기념관' 등 낙동강 일대 안보전적지를 둘러보는 안보현장견학 행사. 전주시안보단체협의회는 9월5일 북한의 도발 현장인 제2땅굴과 남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생활상을 비교할 수 있는 강원도 철원군의 철의 삼각전적지 견학.

장수군회 : 8월28일부터 9월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일대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익산시회 : 8월10일 익산시청에서 정현을 익산시장과 향군 업무와 관한 간담회를 갖고 협조 요청. 9월3일 팔봉군경묘지 총령탑 참배, 호국영령 기려.

부안군회 : 8월31일 부임 인사차 향군회관을 방문한 신임 전병순 부군수에게 원할한 향군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9월14일 여성회는 한가위를 맞이하여 관내 불우이웃 27가정에 쌀국수와 삼계탕을 전달.

임실군회 : 여성회는 9월6일 임실 우체국 앞에서 임실 장날을 맞아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바자회 열려.

진안군회 : 여성회는 9월8일 관내 백운요양원에 방문, 위문활동.



정읍시회 : 9월12일 무공유공자전공비 참배, 호국영령 기려.

완주군회 : 9월14일 지리산 일대에서 향군 임원 단합대회를 갖고 친목 도모.

김제시회 : 9월17일 추석명절을 맞아 김제대대를 방문, 훈련중인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

광주·전남 향군



영광군회 : 9월7일, 8일 임직원 50여명이 울릉도·독도를 방문, 일보를 규탄하고 독

도수호 의지를 다졌다.

나주시회 : 여성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kg·30포대를 불우이웃에게 전달.



광양시회 : 9월15일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등반대회를 갖고 친목 도모.

담양군 월산면회 : 8월30일 25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구례군회 : 여성회는 9월9일 국제 철인3종 경기인·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의·원활한 경기운영과 성공개최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진도군회 : 9월14일 박영관 안보교수를 초청, 향군정체성 교육을 실시.

경상북도 향군



성주군회 : 8월24일 임실군 향군을 초청,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21회 영·호남 국민화합 교류 행사 실시.

안동시회 : 여성회는 8월24일 관내 요셉의 집에서 급식 봉사활동 실시.

상주시회 : 여성회는 8월22일 냉림사회복지관에서 급식 봉사활동 실시.

영주시회 : 8월21일 부임인사차 향군을 방문한 신임 김성렬 영주경찰서장과 환담하고 상호 협조. 9월7일 영광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북의혼 나라사랑 학생통일 안보 교육.



문경시회 : 9월10일 문경시청을 방문, 고윤환 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향군 현안 문제 협조 요청.

영천시회 : 9월13일 영천국립호국원에서 열린 영천대첩 기념행사에 참석 봉사활동을 전개.



경산시회 : 9월8일 관내 중·고등학교 전교 학생회장단을 초청하여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임진각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영덕군회 : 9월11일 방문객들을 위해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탑 주변 청결운동. 9월14일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식 참석

포항시 장량동회 : 9월12일 여성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경로잔치 비용 마련을 위한 바자회 개최.

경남·울산 향군



경남·울산시회 : 9월6일 창녕 남지중학교 학생과 교사 58명을 대상으로 부산 유엔평화기념관과 해군작전사령부, 유엔 기념공원을 둘러보는 안보현장견학 행사. 여성회는 9월11일 김해보훈요양병원을 찾아 점심 식사배식 봉사와 입원환자 말벗되어주기 활동 펼쳐.

함안군회 : 9월2일 전북 선유도 일대를 둘러보는 안보현장 견학 행사를 실시하고 회원 단합. 여성회는 9월10일 가야읍 삼지공원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추방 문화 캠페인 전개.

하동군회 : 8월31일 추석을 앞두고 호국공원 예초 작업 등 환경정화활동 전개. 8월29일 하동시장에서 하동소방서와 하동군의 용소방대 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차길 터주기 캠페인 실시. 9월8일 옥종면 고성산성 동학혁명 유령탑, 무명용사 충혼탑, 적량면의 호국공원을 둘러보며 청소년 안보기동대 활동 실시.



고성군회 : 8월30일 고성군청에서 백두현 고성군수와 간담회를 갖고 향군업무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합천군회 : 여성회 조순옥 총무는 9월6일 합천군청 회의실에서 전국 규모 추곡대회 봉사 및 전반기 우수 봉사자로 선정, 군수 표창. 9월11일 진해해군사령부 및 삼전포일대로 안보현장 견학 실시.

통영시회 : 9월4일 향군회관에서 거제·통영·고성 임직원 및 여성회원들을 대상으로 도회 행정관리부장을 강사로 초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안보교육. 여성회는 8월27일 6·25참전유공자 위문 사업으로 쌀국수 전달. 9월14일 충무고등학교 학생 및 향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병대상륙작전기념관 견학 및 육군8358부대 방문행사.

함양군회 : 9월14일 함양군 청사에서 함양. 거창. 산청 향군 임직원 및 여성회 임원을 대상으로 도회 행정관리부장을 강사로 초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안보교육.

창원 진해군회 : 9월5일 웅동중학교 교정에서 '웅동중학교 6.25전쟁 학도병 참전

유공자 명비' 제막식에 참석, 참석하여 소중한 생명과 젊음을 바친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 기려.

창원 의창성산구회 : 9월13일 의창구청 강당에서 향군 임직원 및 읍면동회장, 여성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회 행정관리부장을 강사로 초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안보교육.

양산시회 : 9월7일 (주)모두투어 네트워크 늘푸른 여행사와 회원 복지 및 향군회원 판매 수익 1%를 매년 향군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향군우대가맹점 협약체결.

의령군회 : 9월8일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이 살아있는 명랑대첩 축제를 찾아 안보의식 고취.

김해시회 : 청년단은 9월19일 한가위를 앞두고 북부동 관내 자생단체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 펼쳐.

남해군회 : 9월17일 동남해 농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농·수산물 상품 5~30% 할인혜택.

거제시회 : 9월19일 의료법인 거봉 백병원과 진료지정 향군가맹점 협약 체결, 회원복지 혜택.



울산 남구회 : 8월31일 육군 제7765부대 제3대대에서 병영체험 및 군부대 위문행사. 9월13일 장애인을 위한 나눔봉사문화공연에서 장애우 봉사활동 전개.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8월31일 해군 제7기동전단을 방문, 10월 초에 개최될 2018년 국제관함식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 후원으로 8월20일과 22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훈단체 회원 2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와 장판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실시. 9월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간 일송정과 삼종사 묘, 봉오동 전투기념비 등 중국 항일전·사적지 견학.



서귀포시회 : 9월16일부터 19일까지 임원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전망대, 제4땅굴 등 전적지를 순례.

친목단체 활동

팔미도등대탈환점등 기념행사



KLO 8240부대전우회총연합회(회장 김상기)는 9월14일 팔미도 등대 앞에서 제68주년 인천상륙작전 팔미도등대탈환 점등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월남전참전자 보상 특별법 제정 공청회



월남전참전자회(회장 직무대행 서현석)는 9월1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월남전참전자 포괄적 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거졌다.

광복군 창설 78주년 기념식



광복군동지회(회장 이영수)는 9월17일 백범기념관에서 한국 광복군 창군 제78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수송병과 창설 기념행사



수송동우회(회장 장동명)는 9월11일 육군회관에서 제 67주년 수송병과 창설 기념행사를 거행했다.

제68주년 영천대첩 기념식



영천대첩참전전우회(회장 이범선)는 9월13일 영천호국원에서 제68주년 영천대첩 기념식을 거행했다.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



대령연합회 (회장 유승일)는 9월11일, 12일 백령도 6해병여단 및 OP, 111육군항공대대, 연평해전 추모비 참배 등 안보현장 견학행사를 가졌다.

임원 및 단체장 간담회



정보동우회 (회장 박상수)는 9월12일 프레스센터 일품헌에서 하반기 임원 및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순)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을지·타이어겨단전우회** : 10월5일 강화 교동 충훈전적비에서 유격군 충훈 및 전적비 건립 17주년 추모제.
- ▶ **정보동우회** : 10월10일 서울대공원에서 스릴링 등산 및 자연보호활동.
- ▶ **영관장교연합회** : 10월10일 회 사무실에서 회장단 회의.
- ▶ **백골전우회** : 10월10일 기계면 성계리 광장에서 기계 안강전투 전승 기념식.
-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10월10일 전쟁기념관에서 제3회 장진호 전투 영웅 추모행사.
- ▶ **영도유격부대전우회** : 10월11일 부산 태종대 유적비에서 영도 유격부대 창립기념 및 추모제.
- ▶ **한국유격군백호부대전우회** : 10월11일 백령도 백호부대 전적비에서 유격군 백호부대 추모제.
- ▶ **백마고지참전전우회중앙회** : 10월12일 어린이대공원 3군신 동상에서 백마고지 3군신 추모제. 10월16일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백마고지 참전영령 추모행사.
- ▶ **갑종장교전우회** : 10월12일 회 사무실에서 삼일운동위원회의. 10월19일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전몰갑종장교 989위 합동 추모제.
- ▶ **호림안보협의회** : 10월15일 서울현충원 유격부대전적비에서 제69주기 호림특수부대 전몰장병 위령제.
-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10월17일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제52회 전국 상이군경 체육대회.
- ▶ **포병전우회** : 10월18일 용문사에서 역사탐방 행사. 10월25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홀에서 포병의 날 행사.
- ▶ **인천학도의용대6·25참전회** : 10월18일 인천 자유공원 호국기념탑에서 6·25참전회 전사자 및 작고회원 합동 추모제.
- ▶ **육군3사관학교총동문회** : 10월18일 국방컨벤션에서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 ▶ **헌병전우회** : 10월19일 3사단 헌병대 앞 위령비에서 6·25참전 금화지구 희생 현우 추도식.
- ▶ **육군종합학교전우회** : 10월22일 이천호국원 충용탑에서 전몰전우 추모 및 충용탑 건립 42주년 기념식.
- ▶ **해병대전우회중앙회** : 10월27일 과주 임진각에서 장단·사천지구 전투 전승행사.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군 우대가맹점

▲ 가맹점협약 업소현황

전국 1,474개 업소

▲ 이용방법 :

사용 시 향군회원증, 여성회원증, 장성회원증 제시
*숙박시설, 골프장 등 이용 시 사전예약

▲ 향군 우대가맹점 찾기

- 향군 홈페이지(<http://korva.or.kr>)
향군 우대가맹점 검색
*이용 희망지역, 업종 및 상호명으로 검색
- 사용 예정지역 시·도·시·군·구 재향군인회에 전화 문의

▲ 신규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대전산재병원** (대전시 대덕구 계곡로 637) 042-670-5114 : 비급여 20~30%
- **이엘치과병원**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782) 042-931-2825 : 비급여 10%

식당/음료

- **가마골식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70-1) 041-571-0868 : 5~10%
- **분식마을**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54) 055-942-9458 : 10%
- **영남밥집**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 8길 14) 055-942-6788 : 10%

기타

- **SK포인트뱅크 증부지사** (대전시 대덕구 대화로 160) 042-670-8800 : 14%
- **경동모터스**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88) 042-931-9700 : 20%
- **대성모터스** (대전시 대덕구 대화로 16) 042-636-0363 : 10%
- **대전역전장제식장** (충남 보령시 해안로 45) 041-932-1414 : 10%
- **삼정G&B**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405) 010-9080-7955 : 10%
- **삼촌타이어**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182) 041-567-8419 : 10%
- **송승준 법률사무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길 33) 055-945-2689 : 상담
- **안경타임 중리점** (대전시 대덕구 중리로 70) 042-638-9490 : 20~30%

- **엘플러스웨딩**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02-2190-2500/2222 : 15%
- **우리물서비스**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89-1) 042-585-2334 : 10~20%
- **하니투어 여행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선영5길 34) 041-523-8775 : 3~5%
- **하니리조트**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23-305) 042-546-1234 : 1인 10만원

▲ 우수 가맹점 현황

병·의원/의료기기

- **굿모닝백이안과**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4) 051-862-0102 : 20%
- **나은병원** (인천시 서구 원적로 23) 032-584-4119 : 비급여 20~30%
- **동작경희병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146) 02-822-8112 : 10%
- **바로병원** (인천시 남구 인주대로 458) 032-722-8585 : 비급여 20%
- **부산고려병원** (부산시 남구 수영로 238) 051-930-3000 : 비급여 10~20%
- **삼육부산병원** (부산시 서구 대티로 170) 051-600-7575 : 비급여 10%
- **세움치과** (광주시 서구 지평동 1185) 062-232-2875 : 20~40%
- **스마트치과의원 벼어점**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36) 053-712-9999 : 15~30%
- **스마트치과의원 서부점**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 053-653-9999 : 15~30%
- **위클리트치과의원**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373) 02-432-2275 : 30%
- **인천마디병원**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204) 1644-8344 : 20%
- **좋은선린병원**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로 43) 054-245-5000 : 10~20%
- **참사랑노인병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장로 1910) 043-298-9100 : 20~50%

- **통영서울병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603-11) 055-644-1777 : 15%

숙박·리조트

- **백씨제주요트투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154-17) 1544-2988 : 40%
- **상그리아비치리조트** (전남 목포시 상동 1144-7) 061-285-0100 : 30%
- **최소객해당메타터** (제주도 서귀포시 최소객로 151-8) 064-733-0252 : 40%

기타

- **국민요양병원장제식장** (울산시 남구 아음2동 653-3) 052-269-0119 : 10%
- **두산익스프레스** (대전시 서구 월평동 1085) 042-488-0424 : 10%
- **릴리콜리워** (경남 진주시 동진로 162) 055-752-7030 : 10%
- **사로망안경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112) 033-342-0108 : 30%
- **세종장제식장** (세종시 연서면 함박로 300) 044-866-4444 : 10%
- **안양장제식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리스로 144번길) 031-456-5555 : 20%
- **양양자동차공업사**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길 27) 033-671-6880 : 10%
- **제주오렌지렌트카** (제주도 제주시 도령로 171-1) 064-713-0034 : 30~80%
- **(주)복의정부지동차**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57-19) 031-878-1000 : 10%
- **중앙스튜디오** (서울시 영등포구 도신로 234) 02-844-1177 : 30%
- **춘천영물닭갈비** (강원도 춘천시 옛경춘로 807) 070-8837-2069 : 5%
- **타이어뱅크신평점** (경북 구미시 원평동 560-5) 054-461-1777 : 13~20%

향군장학기금

※ 기간 : 8월 25일 ~ 9월 26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단체

• 전라북도재향군인회
(회장 주대진) 220(2,343)

▶ 개인

• 산하업체 (주)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50)
• 대구시재향군인회 이사 엄무현 10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9)
• 일반회원 (주)대창농축 오승훈 1(27)
• 일반회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27)
• 일반회원 동국대학교부속중학교
교사 이미래 1(24)
• 일반회원 우리은행 태릉지점
신현정 2(12)

▶ 정기기부

• 경기도 양주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오상억 3(195)
• 권율부대 선거이 연대
강모아 1(39)
• 일반회원 이정호 1(248)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전북 향군 장학금 220만원 기탁

행사화환 대신한 격려금으로 장학금 미련



주대진 전라북도 향군회장이 9월 13일 “참전용사 후손들을 위한 장학 사업에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 220만 원을 기탁했다. 주대진 회장은 “2018년 전라북도 향군 정기총회 및 회장 취임식 참석 단체장과 일부 참석자들이 화환대신 낸 격려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진호 회장은 전라북도 향군조직을 관리하고 다양한 안보활동을 통해 향군의 자긍심을 고양과 위상 회복에 노력하고 있는 주대진 전라북도 향군 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소중한 장학금을 뜻있게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정보

뇌 건강의 불균형, 「조현병」약물치료 등 조기치료 중요

조현병(정신분열증)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질환의 증상

조현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망상과 환각이 있다. 망상은 사실이 아닌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으로 누군가 나를 해치려 한다고 믿는 피해망상, 지나 가는 사람들이 내 얘기를 수군댄다고 믿는 관계망상 등이 대표적이다.

환각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환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의 소리를 듣는 환청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망상과 환각 외에도 무더운 날에 옷을

여러 겹 끼입는 것과 같은 부적절하거나 혼란스러운 생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감정 표현이 없어지고 말수나 행동이 줄어드는 음성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환의 원인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크게는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이 작용하는데 그 중에서 생물학적 원인이 발병에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간의 통념과는 달리 ‘마음의 병’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조현병의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도파민을 비롯한 신경전달 물질의 이상, 전두엽 변연계를 비롯한 뇌의 구조적, 기능적 이상, 유전적 경향성 등이 있다.

진단·검사

조현병의 진단은 주로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임상적으로 내리게 된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진단 기준을 보면 망상, 환

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의 5가지 중 2가지이상 증상이 1개월 이상 존재하는 경우를 조현병으로 본다. 그 외에도 혹시 다른 내과, 신경과적 질환 때문에 조현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내과적 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검사를 이용하기도 한다.

치료방법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정신병약물을 이용한 약물치료이다. 약물 치료는 조현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신경 전달물질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이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조현병의 재발을 막아줄 수 있다.

그 외에도 망상, 환각의 완화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환자 가족들에 대한 교육, 다시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재활 등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행정보

10월에 가볼만한 곳



서울역새축제 2018



부산자갈치축제201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8

서울역새축제 2018

역새꽃이 만발한 10월,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서 색색의 조명으로 물든 역새밭과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역새축제가 10월12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다. 생태공원으로 조성되어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야간에는 출입이 통제되는 하늘공원을 야간 개장하여 삶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은빛 역새물결 사이를 거닐며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서울 역새 축제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연령·성별·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가능한 부대 행사를 통해 오감으로 느끼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역동적인 서울의 대표 문화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하늘공원의 광활한 역새밭에서 일상의 여유와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길 바란다.

〈서울특별시사업소 /02-300-5542〉

부산자갈치축제2018

전국 최대의 수산물축제 부산자갈치축제가 10월11일부터 14일까지 부산자갈치시장 일원, 유리리 광장, 광복로 등에서 다채로운 체험행사, 문화행사와 먹거리들을 준비하고 열린다.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자갈치축제기간 동안 용신제, 만선제, 거리퍼레이드 등 풍성한

문화예술 공연과 각종 퍼포먼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산물 깜짝경매, 맨손으로 물고기잡기, 장어·문어 이어달리기, 세계 최대비빔밥 만들기, 자갈치맛전국관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특히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앞 남항바다위에서 불꽃쇼를 연출해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자갈치시장 뿐만 아니라 유리리 광장, 광복로 등에서 축제가 개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051-243-936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8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9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안동시 탈춤공원, 문화의 거리 등 안동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 최대 전통문화 콘텐츠 축제인 탈춤페스티벌은 1997년 안동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 시작됐으며 문화체육부 ‘10대 문화관광 축제’에 선정되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는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12개 중요무형문화재단체 공연과 중국, 터키, 볼리비아 등 12개국의 외국 탈춤 공연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세계탈놀이경연대회, 미술대전, 탈놀이대동난장, 나만의 탈 만들기, 탈춤 따라 배우기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안동민속축제도 함께 개최되어 차전놀이, 놀다리밟기 등 안동의 전통문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안동시/안동축제관광재단/054-841-6397~8〉

전우여! 어디에 ...

• 김은종씨가 1982년 논산 연무대출신으로 경기포전 6군단사령부에서 후반기 통신교육을 받고, 336관측대대175부대 2포대에 근무했던 강문석(군번13269807) 전우 등을 애타게 찾습니다. 〈김은종010-5388-2581〉

• 강무천씨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같이 근무하던 브라보 수송부 선배님들을 찾습니다. 수송부 선임하사 김종채님, 전동수

님, 박종석님, 박태열님은 연락 바랍니다. 〈강무천 010-3572-2618〉

• 정석봉씨가 1979년부터 1982년도까지 27사단(이기자 부대) 77연대 1대대 본부중대 참모과에서 근무했던 구본영씨를 찾습니다. 당시 정석봉씨는 정보과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정석봉 010-9011-9858〉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재향군인신문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환 간 별 월 간

2013년 12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75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LS타워(성수동 1가)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보정세 브리핑 평화협정의 체결과정과 전망 ①

평화협정 체결과정과 전망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은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상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평화협정이 발효되면 평화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는 종전선언의 논의 단계로 평화협정 체결은 평화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안으로 평화협정의 체결은 새로운 체계로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평화협정은 그 내용의 방대함과 주변국과의 이해관계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화협정의 효력이 발효되어 평화체제가 이루어지려면 남북미와 주변 관련국과의 순순환적인 평화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27 ‘판문점선언’에 따라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명시함에 따라 남북, 미·북간 협상 결과에 따라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금년 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어 협상 결과에 따라 종전선언이 이루어 지고나면 다음 단계로 북한 비핵화 여부에 따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법적 완성인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한반도에는 지난 65년 동안의 전쟁상태에서 벗어난 새로운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종전선언 후 북한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평화협상이 이루어질 것임에 따라 평화협정이 무엇이고, 평화협정의 체계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사례분석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후 예상 시나리오와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평화협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전적 의미의 평화협정은 소규모 독립 국가들이 서로 유사한 종교적, 문화적 가치체계를 가진 지역에서 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 외교관계를 맺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주로 국경선의 불가침과 중재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17세기 초반 유럽에서 근대국제법이 등장해 유럽 국가들 사이의 전쟁을 종결짓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19세기 이후로는 근대적 관점에서 전쟁과 관련한 수많은 국제법들이 등장하여 발전하게 되면서 평화협정, 동맹, 보증 등의 정치적 협약뿐만 아니라 무역협정, 영사 문제 등에 대한 별도의 협약과 법률 지원 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국가 간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이 종식되는 관행이 자리 잡게 되었다.

참고로 16, 17세기에는 전체 전쟁의 3분의 1정도가, 18세기에는 절반 이상이, 19세기에는 3분의 2가, 1920년 이전에 발생한 전쟁의 대부분은 평화협정을 통해 종식되었는데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민족, 종교, 인종 등 새로운 갈등 구조로 인해 내전(civil war)의 형태로 나타난 분쟁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으며, 이중 절반가량은 평화협정의 체결을 통해 해결되었다.

평화협정, 분쟁종결 목적으로 체결되는 문서합의

평화협정의 정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분쟁 당사국 간 전쟁 및 분쟁을 종결하고 모든 당사자가 협정의 조건에 따라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협정’을 말한다. 이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교전국 간에 체결되는 공식적인 협정으로 그 내용에는 당사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계획과 과정이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분쟁당사국 간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체결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로 적대행위의 중지, 조약의 체결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는 문서에 의한 합의로 정의된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평화협정의 주요 기능은 상대국과의 적대관계 청산, 폭력의 종식, 상호 안정을 보장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단지 비폭력적인 상태, 무력적 적대관계의 부재, 교전이 없는 상태 등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법적 완성, 평화협정

과 같이 소극적 의미를 넘어선 과거 적대관계에 있던 당사국 간에 연속성 있는 타협과 화해 그리고 적대행위, 폭력행위, 공격행위, 상해 또는 손상행위 등을 행하였던 상대방 국가의 국민에 대한 용서와 사면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호 및 선린관계의 회복을 의미한다. 향후 체결될 평화협정은 단순히 적대관계의 종료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평화협정의 체결이 요구된다.

이러한 평화협정의 특징은 그 동안의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과정을 진전시키는 전환기적 협정으로 평화협정을 통해 전쟁상태를 종식시킬 수는 있으나, 내외부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추가협정을 통해 극복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평화협정은 과거의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평화협정은 동맹조약과 같은 정치·군사적 조약에 영향을 끼치는데 평화협정과 동맹조약의 상호작용은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로 간주되는 특정 정부의 지향성의 변화를 의미하며 조약형성의 기초가 되는 국제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UN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동맹조약으로서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평화협정은 후속적인 무력분쟁이나 내부적으로 선거나 국민투표에 쉽게 영향을 받아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평화협정이 반드시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분쟁 당사국 간 평화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가지로 구분되는 평화협정의 형식

평화협정은 전쟁상태의 종식과 더불어 전쟁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의 해결에 기초한 정상적인 평화회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전쟁상태의 종식과 평화회복간의 관계에 따라 평화협정의 형식을 3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전쟁상태의 종식과 평화회복을 하나의 협정과 조약 속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교섭당사자의 쌍방이 1개의 문서에 서명하는 조약형과 공동성명이나 교환공문의 형식을 취하는 공동성명형, 교환공문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조약형의 대표적 사례로는 ‘영국-아일랜드 조약’ (Anglo-Irish reaty)(1921. 12. 6),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51. 9. 8) 등이며, 공동성명형 혹은 교환공문형의 사례로는 ‘파리평화협정’ (베트남에서의 전쟁종결 및 평화회복에 관한 협정, 1973. 1. 17), ‘캄보디아 평화협정’ (1997. 10. 23) 등이 있다.

둘째, 전쟁상태의 종식을 먼저 선언한 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위하는 방식으로 전쟁상태의 종식선언을 종전선언이나 잠정적인 평화협정을 발표한 뒤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단계별로 평화의 과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는 세부적인 내용을 구분하여 해당 사항에 대해 단계를 두어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단계 강화형 방식이다. 주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체결된 1978년 ‘캄프 데이비드 협정’, 1979년 ‘이집트-이스라엘 평화협정’ 및 1994년 ‘워싱턴 선언(The Washington Declaration)’,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등이 있다.

셋째, 전쟁상태의 종식만 선언하거나 수교협정으로 평화의 회복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하지 않고 단순히 전쟁상태 종식의 선언만으로 교전당사국 간의 평화를 회복하는 방안과 단순 수교조약만으로 평화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구분 가능하다. 전쟁상태의 종식을 선언하여 평화를 회복하는 방안에는 대표적으로 소련과 일본 간의 ‘소·일 공동선언’ (1956. 10. 19)이 있다.

평화협정의 유형과 담아야 할 내용

평화협정의 유형은 예비적 기초협정, 실질적 기본협정, 보완적 이행협정으로 나눌 수 있다.

예비적 기초협정에는 분쟁 당사국 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서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적 합의를 하기 위해 체결되는 협

정인데 일반적으로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단계에서 체결되며 분쟁 당사자 간 상호 확신 및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실질적 기본협정은 전문, 개별조문, 부속합의서 등의 법적 인 구조와 형태를 갖춘 합의문으로 보통 ‘평화협정’으로 불린다. 분쟁 당사자 간 더 이상의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평화 상태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해결하고 분쟁상태를 항구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다.

통치 및 자치권, 선거, 사법, 인권문제 등을 포함한 새로운 법질서 제도를 확립하고 군사적 대치를 종료하기 위해 군대의 재배치, 해체, 철군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는 등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 문화, 경제적인 포괄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 상태로 진입하기 위한 제도를 시도하게 된다.

보완적 이행협정은 실질적 기본협정에서 포괄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협정으로 협정의 실천과정에 나타난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정의 세부이행 지침을 마련하는 유형이다.

평화협정의 체계 및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규율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서 관련 조항의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항 하나마다 전문적이고 방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의 체계는 당사국간 공동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본협정과 남북한, 미북 간의 당사국간 부속협정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주요 내용으로 체제보장은 북미, 남북 불가침 합의, 각종 제재 해제, 국교 정상화를 통해 상호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

군사경계선 확정 문제는 육상 분계선의 경우 휴전선을 중심으로 경계되어 문제가 없지만 해상분계선의 경우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NLL을 남북한 간 확정된 합의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구축 위해 군축 등 실질조치 이어져야

평화체제가 한반도의 평화 상태를 법적, 제도적으로 공고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군비통제 역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기본 목적을 갖고 있는데 평화체제 구축을 제도적 평화장치라고 한다면, 군비통제는 실질적 차원의 평화장치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서는 미북 수교나 평화협정 체결을 넘어,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대립의 해소와 군축을 통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평화관리 방안은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여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므로, 통일 이전까지의 분단관리와 위기관리를 위한 평화관리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에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주한미군의 장래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남북한과 미국 3자간에 어떤 식으로든 일정한 협상과 합의에 의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문제는 기본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으로, 남북 및 미북간 합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평화협정 체결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정론이다.

남북간 및 평화협정 당사국간의 경제교류협력의 확대 분야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통합하는데 기여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화협정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평화보장 방안은 새로운 협정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체제에 정통성을 부여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국제적인 평화 보장문제로 이 부분도 평화협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해오던 유엔사의 해체 및 역할 전환 문제, 평화협정에 위반되는 남과 북의 법률, 제도의 개폐 문제, 전후 청산 문제 등이 있다.

〈자료제공 : 호국안보국〉
다음호에 계속